

## 자궁경 견인 확장기

글 ✎ 신좌섭(서울대학교병원 병원사연구실 겸직교수)



**사진의** 기구는 임신 말기에도 자궁경부가 열리지 않을 때 자궁경부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던 철제 기구이다. 곤봉처럼 생긴 막대 여러 개를 하나씩 자궁에 삽입한 후 한데 묶은 다음 아래쪽에 추를 달아 중력의 힘으로 견인하였다.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견인 확장기는 20세기 초반에 사용되던 것으로, 임신중절 목적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자궁경부를 확장하는 기구로는 두개의 손잡이와 날로 구성된 수동식 확장기와 진동식 확장기가 있으며, 해초 뿌리에서 채취한 원추형 팽창물질인 라미나리아가 있다.

견인확장기를 이용해 자궁경을 확장하는 방법이 다소 끔찍해 보이지만, 그리스-로마 시대의 산과기구들 중에는 외과용 기구들과 소식자(消息子), 탐침 외에도 갈고리, 아두천공기(兒頭穿孔機), 파쇄기 같은 것들이 있었다. 서기 2세기경 에페소스의 소라누스(Soranus)가 남긴 산과서(産科書)에는 갈고리를 사용해 죽은 태아를 적출하는 방법이 나오며, 천공기, 파쇄기 역시 사산아를 적출하는 데 사용되었다. †